

7/5(월) 다니엘 묵상 31

다니엘 7:15-28

말씀 읽기와 묵상 -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

다니엘 7:15-28절은 다니엘이 꾀 첫번째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. 지난 주에 세 번에 걸쳐 묵상했던 다니엘서 7장의 내용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다니엘의 번민

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꿈 속에서 본 환상으로 인해 보인 두 가지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꿈으로 인해 다니엘은 중심에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걱정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궁금합니다. 보통 이런 경우 전후 구절을 확인하게 되는데 다음 구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(16절, “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 주며 이르되”). 여기에 보면,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는 이(“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”)가 있었습니다. 그는 천사들 중에 하나인 가브리엘로 추정합니다(16절하, “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”). 그렇다면 다니엘이 걱정한 이유는 그가 꾀 꿈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? 아닙니다.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꿈을 해석했던 것도 자기가 스스로 했다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(은사)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28절을 보면 천사의 해석을 다 듣고도 동일한 번민에 빠져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이를 증거합니다(28절, “그 말이 이에 그치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.”). 즉, 다니엘이 걱정에 빠진 이유는 다른 어떤것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

번민의 이유

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본 환상은 이미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 재위 3년에 꿈꾼 금 신상의 환상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. 당시에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니엘 입장에서 자신이 꿈이 그리 놀랄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꾀 꿈과 다른 점이 다니엘을 놀라게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. 번민에 빠지게 한 꿈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당할 큰 고난과 환란 때문이었습니다.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 유다가 멸망 당하는 일을 직접 겪으면서 제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이었습니다. 비록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기에도 높은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지만 그의 고국과 백성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.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(렘 29:10, “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.”). 그러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의 시대 즉 이스라엘의 70년 포로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.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넷째 짐승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 주었습니다(23-25절, “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

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.”). 그 내용을 보면 넷째 짐승이 온 천하를 짓밟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일정기간 괴롭게 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에 관해서는 “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”고 말씀합니다. 이는 ‘한 때’를 ‘일 년’으로 볼 경우 ‘3년 6개월’이 되는데 이것을 숫자로 해석해야 할지 또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동의 하는 바는 그 시기가 그리 길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환란의 시기가 끝나면 곧이어 모든 나라와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(27절, “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.”).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는 짧은 기간에 한정된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.

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본문 속 넷째 짐승들 사이에서 적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모든 지상의 권력과 정치 세력의 배후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. 한편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의 정치를 사용해서 그 분의 사역을 이루기도 하셨지만 정치 권력을 우리가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교회를 돌아볼 때 세상의 정치 권력과 밀착된 교회는 항상 부패하고 이용당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께서도 세상 정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와 권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(딤후 2:1-2). 그리고 이 땅의 정부와 위정자들이 하는 일에 있어 기본적으로 순종하면서도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는지 분별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.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정부와 세력들도 전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20-21세기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있는 시대입니다.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니엘의 변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적용 -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?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.

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

1. **적용의 기도:**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.
2. **이단들을 위한 기도:** 우리 주변에 잘못된 이단의 세력에 빠져 거짓된 진리와 공동체로 빠진 가족들과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.
3. **교회를 위한 기도:**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 중보합니다. 오늘은 트럼블 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.
4. **선교지를 위한 기도:** 1국 태일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.